

7 광주일보
제17558호 2006년 9월 21일 목요일

차량 내부 물품 훔친 20대 고속도로 통행권 사용 '덜미'

심야시간 주택가에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통째로 뜯어 내 차량 내부의 물품을 도둑질한 20대가 훔친 고속도로 통행권을 통게이트에서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임모(28·광주시 서구 쌍촌동)씨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주택가에서 김모(28)씨의 코란도 승용차 뒷 유리창을 뜯어내고 안에 있던 네비게이션과 고속도로 통행권(5만원권)을 훔친 것은 지난 5일. 임씨는 뒷 유리창과 차체의 이음매(고무) 부분이 약한 것을 알고, 칼로 잘라낸 뒤 유리창을 뜯어냈다.

임씨는 훔친 네비게이션은 평소 알던 김모(30·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씨에게 20만원을 받고 팔고, 고속도로 통행권은 자신이 가져다. 돈을 '빚' 임씨는 이어 지난 8일 자신의 스포티지 승합차를 몰고 부산에 있는 애인을 만나러 갔다. 고속도로(남해) 통게이트를 통과할 때는 훔친 김씨의 통행권을 이용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고속도로를 타고 순천을 가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의 '여행'은 오래 가지 못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광산경찰이 한국도로공사에 이 통행권을 사용한 차량의 번호를 찍어놓도록 부탁했기 때문이다. 결국 임씨는 차량 번호를 알아낸 경찰에 의해 20일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같은 수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4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네비게이션을 산 김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남구의원, 구청과 수년째 수의계약 “도덕성·직위 남용” 논란

광주시 남구의원 회 의원이 대표로 있는 통신업체가 최근 4년 동안 남구청과 수차례 수의계약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과 직위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남구청에 따르면 H통신 대표인 남구의원 K(50·민주당)의원은 지난 2003년 심장 복지회관 신축공사 당시 남구청과 500만원에 수의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2004년 3월 남구청 보건소 통신공사 ▲같은 해 6월 구청 통신공사 ▲2005년 9월과 올해 3월에 주월2동사무소 전기공사 등 5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남구 관계자는 “올해 체결된 동사무소 공사는 지난해 1차 계약이 이뤄진 사업으로 원활한 공사를 위해 2차 공사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K 의원은 “올해 맡은 동사무소 통신 공사는 ‘연계공사’로 지난해에 이어 맡게 됐다”며 “지난 2003년부터의 계약 5건 모두 정당한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공공단체와 계약이나 영리 사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화알~ 짹 웃으면 병이 달아나요”



19일 오후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환자 20여명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음악 치료' 수업을 하고 있다. /무안=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세계 치매의 날을 이틀 앞둔 19일 오후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노인 20여명이 울긋불긋한 색의 팔랑이를 흔들며 '음악 치료' 수업 중이다. 강사가 시키는 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흔들며 간단한 동작이 이어진다.

“치아가 보이게 화알~ 짹 웃으세요.” 사회복지사 장은정(여·29)씨가 양손으로 입가를 눌러며 웃음을 유도하자 어린이 같은 천진한 미소가 떠오른다. 장씨는 “웃게하면 어르신들이

린다. 수발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고통, 경제적 부담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간의 유행(流行)이다.

김천대(78·무안군 망운면)씨는 “치매에 걸린 부인(75)을 혼자서 돌보기가 버거워 노인전문요양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80만원에 이르는 병원비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나에게 부담”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치매 환자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비용은 평균 787만3천여원. 위생적인 환경과

음악·미술·체조 프로그램 운영 꾸준한 치료와 관심 가지면 호전 치료비 年 790만원...가족들 부담

기운을 되찾아 즐겁게 병원 생활을 하게 된다”며 “수업을 받은 노인들이 '이제 몸도 안 아프고 기분도 좋다'며 몰래 싸든 고무마 등을 건넨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는 미술·음악·체조 등 프로그램을 매일 두 차례씩 운영하고 있다.

“치매” 하면 대·소변을 못가려 엉망이 된 노인이나 이에 시달려 몸도 마음도 괴로워진 가족, 밤새로 괴로워진 병동 등을 떠올리게 마련. 그러나 이곳에서 행동이 거칠거나 막무가내로 때를 써 강박인을 힘들게 하는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치매도 꾸준한 치료와 관심이 뒷받침된다면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셈이다.

그러나 치매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가족들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에 시달

꾸준한 보살핌이 보장되는 노인전문 병원이 인기지만, 시설이 태부족해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전갑홍(55·영암군 서호면)씨는 “지난 5년간 치매로 고생해온 어머니(76)씨를 한해 사립요양원에 맡기기도 했는데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국가지원을 받기에만 급급하는 모습이 실망해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인 무안까지 왔다”며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무관심한 지자체를 탓했다.

무안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송의료재단 어근 이사장은 “지자체와 국가에서 지역 의료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노인 요양시설을 확충해야 치매 노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광주·전남 치매환자 5만 2,000여명 추정

광주시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9만9천389명. 이중 1만여명이 치매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의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4.9%인 29만5천 명(2005년 기준). 이중 중풍과 치매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4만2천여 명이다.

하지만 전문요양병원은 광주 266 병상, 전남 236 병상 등 모두 502 병상에 불과하다.

고교 학력 위조 대학 부정입학

북구의원·고교 행정계장 조사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해 대학에 부정 입학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광주시 북구의원 A(51·민주당) 의원과 A의원의 졸업장을 위조해주고, 졸업생 명단에 끼워넣은 전북 고창군 B고등학교 행정

계장 박모(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A의원은 지난해 1월 초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부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받은 뒤 입학절차가 간단한 전남 K 사립대학에 부정 입학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A의원의 부탁을 받고 학교 행정실에 보관 중이던 1975년 졸업생 명단 중 20명을 빼낸 뒤 A의원의 이름을 끼워넣어 졸업생 명부를 다시 만들고 졸업증명서를 발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경찰에서 “중학교 졸업 학력이 너무나 부끄러워 문서를 위조하게 됐다”며 “당선되면 재정사정이 열악한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을 뿐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와, 해당 고교와 대학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광주·전남 지역 기초의원 가운데 졸업장을 위조한 사례가 더 있는지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지역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가운데 학력·경력 허위 기재로 선관위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후보자는 18명(경고 17건·고발 1건)이었다. 전남도의 경우 13명이 학력·경력을 허위 기재해 고발(4건), 수사의뢰(1건), 경고처분(10건) 됐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ROLEX
블렉스공식판매점
이제 광주에서만 판매되는
ROLEX를 만나세요!
T.062-360-1340
(광주신대동 2호점)

연세(가)동립회
대주 피오레
1,300여 세대 중 35세대 333세대
문의 (062)366-4220

심야 편의점 강도 PC방서 붙잡아

○...안도경찰은 20일 심야에 편의점 중업원을 흉기로 위협,

돈을 빼앗은 김모(27·인천시)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김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5분께 안도군 안도를 군내리 모 2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중이던 중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안도 원동검문소를 통과한 차량을 분석하고, PC방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해당 PC방에서 3일째 인터넷에 빠져있던 김씨를 검거.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귀뚜라미보일러를 사용하시는
주부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보일러를 사용하는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 사용하지 않던 보일러를
귀뚜라미보일러 A/S센터 (1588-9000)에서
미리 점검 받아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십시오.

● 귀뚜라미 보일러 A/S전문성을 자랑한 병소가 있습니다.
해동구입 및 A/S 문의는 1588-9000으로 해주세요.

귀뚜라미 보일러 A/S센터는 귀뚜라미 보일러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귀뚜라미 보일러 A/S센터는 귀뚜라미 보일러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귀뚜라미 보일러 A/S센터는 귀뚜라미 보일러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2007년 대학 수시입학생을 위한
중국어 초단기 완성 프로젝트

“합격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중국어 입문부터 150시간까지 5개월 집중합성!”

합성비 200만원 + 150시간 집중합성비

1월	입문반	중국어 입문반	중국어 입문반
2월	중급반	중국어 중급반	중국어 중급반
3월	고급반	중국어 고급반	중국어 고급반
4월	합성반	중국어 합성반	중국어 합성반
5월	합성반	중국어 합성반	중국어 합성반

중국어 시간학교
리틀자이나 中国語学院

2007년 대학 수시입학생을 위한
2007년 대학 수시입학생을 위한